

◆ Hana FX Column

◆ 최근 원화 환율 1,500원 상향 돌파 속 단기 영향 요인 및 방향성 점검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향한 1,500원 원화 환율

지난 2월 말,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고점 인식에 따른 수급 주체들의 달러 매도에 힘입어 1,420원 대까지 하락했던 원화 환율은, 지난 2월 28일 중동 사태 이후 가파르게 급등하며 3월 9일 정규장 증가 기준 1,501원을 기록.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 정보 비대칭성에 기인한 국내 증시에서의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 영향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에 환율은 3월 들어 5거래일만에 1,490원대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야간 거래에서는 1,500원을 돌파 하기도 했음. 하지만, 외환당국 경계감과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물량 유입,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와 미-이란 협상 가능성 등에 국제유가도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도 1,470원 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음. 그러나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며 유가 변동성이 재차 확대된 가운데, 연준도 물가 안정 기조로 선회하며 매파적 스탠스를 보임에 따른 영향으로 달러인덱스는 100선을 재차 돌파.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은 1,500원대로 올라선 가운데 향후, 고착화 가능성 여부가 시장의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국면을 나타냄.

2. 원화 환율에 대한 단기 외생적 영향 요인 및 방향성 점검

금일 원화 환율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에 더해 연준의 동 영향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 속 매파적 통화정책 결정 등이 달러 강세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1,500원을 상향, 증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0일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냄. 이러한 1,500원 돌파가 이번과 직전 상향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우리 경제의 통제 가능 범위에 있지 않은 시스템적 위기 영향에 따라 1,500원을 상향했다는 점임. 반면, 차이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외환위기에 상응하는 충격이 있었지만, 금번 1,500원 돌파는 우리 경제에 외환위기로 전이되는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것이 큰 차이로 판단됨. 이는 그간 우리 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통해 경제 규모가 크게 확장된 가운데 외환위기에 대한 완충력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 하지만, 1,500원 수준의 원화 환율이 분명 위기로 전이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물가 상승과 생산 비용 증가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 생산 역량 약화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에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준 임에는 틀림 없어 보임.

이러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의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동 전쟁 해결의 실마리가 중요한 핵심이 될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현재의 전쟁 양상이 일각에서 이야기 하듯 미국의 일방적 승리 선언 후 단기 종전으로 끝날 가능성은 요원해진 형국으로 판단. 오히려 이란이 글로벌 경제를 볼모로 한 유가 통제 속에 이스라엘에서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미국의 공습을 통한 측면 지원 양상 속 3개월 이상의 장기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3월 FOMC 이후 연준도 금리인하 사이클의 종료를 서두를 가능성 등이 당분간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환율 1,500원 등락이 일반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 다만, 국내 기업 이익 상향 전망 등에 의한 '전쟁 추경' 등의 조기 집행 가능성 등은 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등에 유의미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